

이 자료는 10월 4(목) 11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례브리핑 모두 말씀

2007. 10. 4(목)

1. 최근 경제동향 / 1
2. 한-EU FTA 등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/ 12
3.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추진 현황 / 18
4. 정기국회 입법추진 주요 법률안 및 현황 / 21

재정경제부
홍보관리팀

1

최근 경제동향

먼저 최근 경제동향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

[8월 산업활동동향]

산업생산

① 8월 산업생산은 수출호조(8월 14.4% 증)와 내수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전월(14.3%)에 이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(전년동월비 11.2%, 전월비 0.8%)

- 다만, 7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은 7월 큰 폭의 증가세를 가져왔던 기저효과 등 불규칙 요인이 완화되었기 때문임
- 업종별로는 반도체(29.4%) 부문이 생산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, 자동차(18.1%)·기계장비(9.4%)의 생산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임

*업종별 기여도(%p) : 반도체 7.77, 자동차 1.34, 기계장비 0.66

*산업생산(%) : (06.2/4)11.5→(3/4)11.3→(4/4)5.2→(07.1/4)3.3→(2/4)7.0, (7)14.3→(8)11.2
<전기비> 0.8 0.5 2.7 Δ0.7 4.4 2.0 0.8

② 9월 산업생산은 추석명절 이동(06년 10월→07년 9월)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(Δ4.0일) 및 전년의 높은 증가세(06.9월 17.6%)에 따른 기저효과 등 불규칙한 요인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

소비재 판매

③ 8월 소비재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.1% 증가하여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부문별로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증가세가 둔화(4.9% → 3.1%)되었으나 내구재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증가세가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음

*소비재 판매(%) : (06.2/4)6.1→(3/4)2.9→(4/4)4.5→(07.1/4)7.1→(2/4)5.3, (7)9.8→(8)7.1
 <전기비> 1.9 Δ0.2 3.0 2.5 Δ0.2 1.6 0.6
 - 내구재(%) : (07.3)17.5→(4)15.3→(5)15.7→(6)11.5→(7)22.0→(8)15.1
 - 비내구재(%) : (07.3)1.3→(4)0.3→(5)2.1→(6)0.5→(7)4.9→(8)3.1

④ 9월 소비재 판매는 최근의 개선흐름에 추석명절 이동 효과가 가세하면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*백화점 매출(%) : Δ2.3 Δ0.1 4.4 0.2 5.6 6.2
 *할인점 매출(%) : Δ5.5 Δ3.1 1.9 Δ2.3 1.7 17.7
 ※자료 : 산자부(9월은 재경부 모니터링 결과, 경상매출액 기준)

설비투자

⑤ 8월 설비투자추계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특수 산업용기계의 감소와 ATM 교체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7월(1.0%)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음(전년동월대비 1.7% 증가)

* 설비투자추계(%) : (06.2/4)6.7→(3/4)11.8→(4/4)5.1→(07.1/4)11.3→(2/4)12.1, (7)1.0→(8)1.7
 * 설비투자(국민계정, %) : (06.1/4)7.0→(2/4)7.2→(3/4)11.1→(4/4)5.3→(07.1/4)10.8→(2/4)11.9

○ 또한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및 기계류수입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

* 기계수주(%) : (07.2)15.0→(3)6.7→(4)1.2→(5)18.0→(6)4.1→(7)30.6→(8)4.7
 * 기계류 수입(%) : (07.3)16.0→(4)42.7→(5)33.7→(6)24.9→(7)6.3→(8)18.2→(9.1~20)6.1

○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는 비중이 큰 반도체 제조 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상반기중 마무리되면서 관련 투자가 둔화된데 주로 기인하며

- 전년 동기의 높은 증가율(06.8월 기계류투자 17.5%)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임

○ 그러나 운수장비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화학·비금속 등 非반도체 부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임

* 기계류(설비투자추계, %) : (07.1/4)15.0→(2/4)11.0, (6)6.2→(7)△1.6→(8)0.1
 * 운수장비(설비투자추계, %) Δ5.0 21.8 26.2 12.8 9.2

건설투자

⑥ 국내 건설기성은 공공부분이 감소세로 전환(13.8% →△0.3%)되고 민간부문 증가세가 둔화(9.8%→6.4%)되면서 전월(12.3%)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됨(전년동월대비 5.5%)

* 건설기성(경상, %) : (06.2/4)△0.3→(3/4)4.8→(4/4)6.0→(07.1/4)6.5→(2/4)5.2, (7)12.3→(8)5.5
 * 건설투자(국민계정, %) : (06.1/4)0.2→(2/4)△5.0→(3/4)△0.1→(4/4)3.2→(07.1/4)3.9→(2/4)3.2

- **선행지표인 건설수주**는 공공부문의 큰 폭 증가(72.5%)와 민간부문의 증가세 전환(7월 $\Delta 38.8\%$ → 8월 6.0%)에 힘입어 **전년동월대비 13.4%** 증가하였음
- **건설투자**는 건설수주 등 공공부문의 건설경기 보완 효과가 아직 지속되고 있어 **최근의 완만한 회복 흐름을 유지할 전망**

경기종합지수

- ㉓ **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3 포인트 상승**하였으며,
- **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.4%p 상승**하였음

*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(p) : (07.3) $\Delta 0.2$ →(4)0.1→(5) $\Delta 0.1$ →(6)0.4→(7)0.5→(8)0.3
 *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(%p) : (07.3) $\Delta 0.1$ →(4)0.3→(5)0.0→(6)0.5→(7)0.4→(8)0.4

[8월 서비스업 활동동향]

- ㉑ **산업생산에 이어 8월 서비스업활동은 7.3% 증가**(계절조정 전월비로는 0.1% 증가)하는 등 **양호한 상승 흐름세가 지속되고 있음**
- 7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, 7월의 경우 **전년도 파업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급등**한데 기인하고 있음

- **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(19.4%), 의료업(12.4%) 등이 증가세를 주도**하였으며
- **도소매업(4.1%), 숙박·음식점업(2.7%) 등 내수관계** 업종의 경우에도 **최근의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여 양호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**

- ㉒ **앞으로도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비스업 활동 증가추세가 이어질 전망임**

[9월 소비자물가 동향]

- ㉑ **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.6%, 전년동월비 2.3%** 상승하였음

	06.9월	07.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
전 월 비	0.6	0.6	0.4	0.1	0.0	0.4	0.1	0.6
전년동월비	2.7	2.2	2.5	2.3	2.5	2.5	2.0	2.3
전년동기비	2.3	2.1	2.1	2.2	2.2	2.4	2.3	2.3

- **농축수산물 가격이 태풍·호우에 따른 출하감소와 추석 수요 등으로 지난달에 비해 크게 상승(4.6%)** 하였으나,
- **지난해 9월 태풍·호우 등에 따른 높은 상승률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로는 소폭 상승에 그침(0.7%)**
- **공업제품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(0.4%)와 내구재(0.4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(0.2%)**하였으며,

○ 공공요금은 도시가스요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7% 상승하고, 집세는 전세(0.1%)와 월세(0.1%) 모두 소폭 상승하였음

○ 반면, 개인서비스는 휴가철 성수기 종료로 숙박료(Δ16.4%), 단체여행비(Δ5.1%) 등이 내리면서 하락함(Δ0.1%)

②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.3% 상승하고,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2.7% 상승하였음

③ 앞으로 물가는 유가급등세 등 대외불안요인이 심화되지 않는 한,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인 「2.5% 수준」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

○ 9월중 크게 상승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경우 계절적 특성을 감안할 때, 10월 이후에는 헛상품 출하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

○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조정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

[최근 국제유가 동향]

① 배럴당 76\$ 이상(두바이油 기준)의 상승세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9월초 이후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 등에 따라 10월 들어 다소 하락하는 모습임

○ 그간의 유가상승은 OPEC의 감산기조* 등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

-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원유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**하는 기대심리 등으로 추가 상승요인이 발생한 데 기인

* 유가하락 방지를 위해 지난해 170만b/d 감산을 단행한 OPEC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자, 9월 총회에서 50만b/d 증산을 결정(07.11월 시행)

** 8월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감소세를 보이던 뉴욕상품시장(NYMEX) 원유선물 순매수계약이 미국 정책금리 인하 이후 증가세로 전환 (07.7월말 16.7만 → 8월말 9.1만 → 9월말 12.8만)

국제유가 동향 (현물, \$/b)

	06년	07년	07.7월	8월	9월	10월	14(금)	21(금)	28(금)	10.3(수)
· Dubai	61.6	63.6	69.7	67.4	73.3	73.6	73.6	76.1	76.6	73.1
· Brent	65.1	67.5	77.5	71.2	77.5	78.0	78.6	79.7	81.6	78.7
· WTI	66.0	66.3	74.1	72.4	80.0	80.3	79.2	82.9	81.6	79.9

* 두바이油 동향: (06.8.8)72.2 (07.1.19)49.1 (9.11)72.2 (9.28)76.6(최고환)

②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가의 급격한 추가상승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함

○ 미국 휘발유 성수기(5월말~9월초) 종료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와 OPEC의 증산으로 원유수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

○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

③ 고유가 지속은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경상수지 악화, 물가상승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

○ 그러나 그간의 산업구조 개선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증가함에 따라 현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파급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

* 석유 의존도(%): (97년) 60.4 → (01년) 52.0 → (06년) 43.8
 * 에너지원단위(TOE/천불): (02)0.367→(03)0.367→(04)0.359→(05)0.357→(06)0.345

④ 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,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임

○ 특히,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가격조사제도 개편, 주유소 가격 인터넷 공개 등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임

[9월 수출입동향]

① 9월중 수출은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(Δ4.0일) 등의 영향으로 0.4% 감소(295.5억불)하였으며 수입도 2.1% 감소(270.6억불) 하였음

○ 무역수지는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비해 4.7억불 개선되었음 (06.9월 20.2억불 → 07.9월 24.9억불)

	2006년				2007년			
	7월	8월	9월	1~9월	7월	8월	9월	1~9월
수출(억불)	257.7	272.9	296.5	2,380.7	302.3	311.0	295.5	2,685.9
증감률(%)	(10.9)	(16.9)	(20.9)	(14.7)	(17.3)	(14.0)	(Δ0.4)	(12.8)
수입(억불)	255.5	270.3	276.4	2,294.8	292.0	296.7	270.6	2,559.5
증감률(%)	(18.8)	(22.9)	(21.6)	(20.4)	(14.3)	(9.8)	(Δ2.1)	(11.5)
수지(억불)	2.3	2.6	20.2	85.9	10.3	14.2	24.9	126.3

② 조업일수 감소의 효과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입을 살펴보면 연초이래의 수출입 증가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○ 9월 일평균 수출은 15.2억불을 기록하여 연중 최고 수준(20.1% 증가)의 증가세를 보였으며

○ 일평균 수입도 유가상승과 소비재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연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(13.9억불, 18.0% 증)

* 일평균 수출증가율(%) : (07.4)14.5 (5)8.8 (6)17.0 (7)14.7 (8)14.0 (9)20.1
 일평균 수입증가율(%) : (07.4)18.0 (5)11.2 (6)11.8 (7)11.8 (8)9.8 (9)18.0

③ 10월 수출은 중국 등 대개도국 수출증가세가 계속되고 추석 이동에 따라 조업일수 증가(+3.5일)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- 10월 수입도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

*국제유가(Dubai, \$/b) : (07.1)51.8→(3)58.9→(5)64.7→(7)69.7→(8)67.4→(9)73.3

[8월 국제수지]

- ① 8월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7월(16.4억불)에 비해 흑자규모가 감소하였음 (6.1억불 흑자)

-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된 가운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여행수지 적자와 특허권사용료 지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임

*특허권사용료 지급은 통상 상반기는 2월에, 하반기는 8월에 집중되는 경향

(단위 :억불)

	06년				07년			
	6월	7월	8월	1~8월	6월	7월	8월	1~8월
·경상수지	9.4	△3.9	△6.4	△14.6	12.7	15.5	6.1	5.3
-상품수지	27.1	16.2	14.4	157.0	32.1	30.4	29.4	190.0
-서비스수지	△11.8	△17.4	△20.9	△127.1	△15.2	△16.9	△24.5	△147.1
-소득수지	△1.6	0.4	3.1	△17.7	0.0	5.3	4.4	△12.5
-경상이전수지	△4.4	△3.1	△3.1	△26.8	△4.2	△3.4	△3.3	△25.0

- ② 9월 경상수지는 통관수출입차가 확대(8월 : 14.2억불 → 9월 24.9억불)되고 계절적인 요인이 완화되면서 흑자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임

[종합평가]

- ① 최근 우리경제는 당초 예상한 대로 하반기 들어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성장속에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

- 8월의 경우 내수지표의 움직임이 전월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이는 기저효과 등 불규칙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,

- 특히,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효과를 제외할 경우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
- ② 다만, 미국 경기둔화, 중국 추가긴축 가능성, 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

- 경기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, 해외여건 변화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해 나가겠음

다음으로 한-EU FTA 등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

[전반적인 FTA 추진 현황 및 계획]

□ 정부는 '99년 칠레와의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로 대륙별 거점 국가 및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인 (multi track) FTA를 추진하여 왔음

- 그 결과 남미, 동남아시아, 유럽의 거점국가와 4건*의 FTA 협정을 발효하였고, 또한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,

* 칠레, 싱가포르, EFTA(4개국), ASEAN 상품협정(태국을 제외한 9개국)

- EU(27개국) · ASEAN(서비스, 투자 협정) · 캐나다 · 인도와의 FTA협상도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임

[한-EU FTA 추진 현황 및 계획]

□ 다음으로 한-EU FTA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,

- EU와의 FTA 협상은 지난 5월 6일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3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, 제4차 협상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

3차 협상 평가

□ 지난 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 수정 상품 관세양허안에 대한 양측의 평가*가 엇갈리면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

- * EU측 입장 : 한미 FTA 보다 장기로 양허한 농산물(주류, 돼지고기, 닭고기, 낙농품, 초콜릿 등)이 다수 포함, 조기철폐 측면에서 양측 양허수준이 여전히 큰 차이
- * 우리측 입장 : 관세부과품목 기준, 조기철폐(즉시+3년) : 한(58.5%) VS. EU(56.2%)

- 상품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

분야별 논의결과

□ 주요 분야별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,

① 먼저, 상품 양허안과 관련, 양측은 협상기간 중 수석대표간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

- 차기 협상에서 한미 FTA를 기준으로 양측 양허안에 대한 산업 부문별 비교 평가 등 의견을 교환키로 하면서,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였음
- 자동차, 전기전자, 의약품 등 비관세 장벽(NTBs)에 관해 EU측이 제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질의·응답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,

- 통관 분야에서는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, 품목분류·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우회 수출입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 협의해 가기로 하였음
- ② 서비스/투자 분야에서는 양측 개방안 및 Request List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,
 - 또한 전문직 상호인정에 관한 구체적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
- ③ 규제이슈 분야 중
 -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EU측이 요구하던 추급권제도 도입 문안 삭제에 합의하였고, 디자인 보호기간에 대해서도 우리측 입장인 15년간으로 합의하였음
 - 정부조달분야에서는 현지 조달실적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
- ④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동 챗터가 노동 및 환경 문제에 한해 적용되고, 보호주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음

4차 협상 준비

- 정부는 차기 협상 준비를 위해 **분과별 대책회의, 관계부처 대책회의,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** 등을 다음 주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며,

-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4차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- 향후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EU와의 발전적인 협상을 통해
 - 상품 분야를 비롯하여, 모든 분야에서 **양국의 이익이 균형 잡힌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**

(다른 FTA 추진 현황 및 계획)

- 다음으로 비준안을 제출한 한-미 FTA 협상 등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

한-미 FTA

- 먼저 '07년 6월 체결된 한미 FTA의 경우 지난 9.7일 **국회(통외통위)에 비준동의안을 제출,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음**
- 참고로 美 국제무역위원회(US ITC)는 지난 9월 20일 "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"를 美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였는바,

* US-Korea FTA : Potential Economy-wide and Selected Sectorial Effects

- 동 보고서는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미국내 비준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

기타 FTA

- 그밖에 FTA를 추진 중인 국가에 대해 살펴보면,
 - 아세안 서비스·투자 분야의 경우 올해 4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으며, 지난 10.2일부터 라오스에서 서비스·투자 분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
 - 양허안 협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금년말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*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사항에 아세안측의 입장 표명 유보로 금년말 타결이 어려울 전망
 - 캐나다의 경우, '05.7월 협상을 개시하여 10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, 차기 협상이 10.9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예정임
 - 금번 협상에서는 핵심쟁점의 합의에 주력하고, 한-캐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분과별 실무 협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
 - 인도의 경우 그동안 7차례 FTA 협상을 개최하여 협정문 및 상품·서비스 양허안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하였음
 - 차기 협상은 오는 10.30일부터 11.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, 금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

- 마지막으로 지난 8월 8일 협상 재개를 공식선언한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멕시코측의 제의로 11월 초순이후 공식협상을 개최할 계획임
 - 양국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만큼, 철저한 준비로 협상에 임할 것임

[당부의 말씀]

- 앞으로의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,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 -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

다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

[지역특구제도의 도입 취지]

-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
 -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
- 지역특구로 지정 받게 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, 농지관리, 토지이용, 출입국관리, 도로교통, 주택,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,
 - 각종 허가·승인·인가사항 등을 면제받거나 관련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으로써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됨

[지역특구제도 추진현황]

-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2007년 9월 말 현재 9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, 전체적으로 약 400개(특구당 평균 4.2개)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음
-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의 자율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역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나 세제 지원도 없음
 - 대신에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
 - 지자체는 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스스로 국비와 지방비는 물론 민자를 확보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

[지역특구제도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]

- 지역특구제도는 시행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특구들이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* 성과평가대상 58개 특구중 2005년도에 지정되고 연도별 매출규모가 확인된 15개 특구의 매출액 증가율은 '05년 25.3%, '06년 30.2%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발전계획의 수립여부와 자율적인 성장의지 등을 감안 하여 특구지정을 계속하는 한편,

- ① 지역특구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보다 다양한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제특례를 확대하고,
- ② 각 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강화 하는 동시에
- ③ 지자체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 지역특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
- ④ 평가결과 우수 특구운영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*으로 지역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켜 나갈 계획임

* 기초 지자체 5개, 광역 지자체 1개에 대해 포상금 10억원을 차등지급

□ 앞으로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의 자율적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

4

정기국회 입법추진 주요 법률안 및 현황

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정기국회 입법추진 현황과 재경위 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에 대한 내용 및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

□ 먼저,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「국가회계법」이 지난 9.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
○ 동 법의 제정으로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 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 시스템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

□ 또한, 지난 9.13일에는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「경제자유구역법」이 재경위 금융 소위를 통과하였으며,

○ 향후 재경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를 거쳐 조만간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

○ 동 법이 시행될 경우, 외국병원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는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
- 다음으로 재경위 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

[사회보험통합징수법]

- 4대 사회보험의 부과·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사회보험통합징수법」은

- 지난해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래 8월부터 재경위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, 3차례 소위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음

- '08년 하반기 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징수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법이 '09.1.1부터 시행되어야 하며,

- 시행 이전까지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,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상황

※ World Bank의 '08년 Doing Business 보고서상 Paying Tax 분야가 106위로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된 주된 요인은 건강보험·국민연금의 납부횟수가 24회(각각 12회)로 기업 등의 부담 가중에 기인

- '09년 통합징수법 시행시 건강보험·국민연금의 납부횟수가 절반으로 축소되어 Paying Tax 분야 순위 상승 및 기업부담 감소 기대

[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]

- '04.2월, 국회에서 비준된 “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 협약”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되는 「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」은

- ‘테러’용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명을 「공중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하여 논의중에 있으며,

- 선진국의 자금세탁방지/테러자금조달억제 국제기구인 FATF*에 '09년 가입을 위해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정이 필수적임

*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

[소득세법 등 10개의 세법개정(안)]

-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10개의 세법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하고, 10.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,

-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국감일정이 마무리된 후 11월중에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- 이외에도 「특정금융거래보고법^{*}」, 「수출입은행법^{**}」 등 다수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 재경위 계류중이며,
 -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상 금년 정기국회가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인 점을 감안하여
 - 정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
- * 「테러자금조달금지법」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(예. 테러협 의 거래보고 등)을 반영
- **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“상품”에서 “서비스”까지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